

한국가스공사 사장이나 해볼까?

산자부, 후보 3명 적격자 없어 재공모기로 ... 정부 지분 61%

한국가스공사 사장 후보 공모 결과 적격후보가 없는 것으로 평가돼 재공모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스공사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 후보 3명에 대해 인사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스산업 현안을 해결하고 가스공사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책임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스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최근 사장후보 공모를 실시해 응모자 11명 중 3명을 유력후보로 선정해 정부에 추천했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6월14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추천후보 3명을 사장으로 선임하지 않고 사장 재공모 실시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는 정부가 6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사장은 정부 내정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화학저널 2005/05/30>